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11. 1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당자	·과장 조태영, 사무관 이양구, 주무관 한승한 ·☎ (044) 201-4027, 4018, 4020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조선비즈, 파이낸셜뉴스, 11.1.) >

◆ “국토부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 객관성 떨어져”

- 국토부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관계 검증 없이 안전운임에 그대로 반영

- 화물차주의 운송 원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으로 조사되며, 물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안전운임에 반영됩니다.
- 화물차주 원가조사는 공식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 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, 원가조사 결과는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.
- 해운협회는 환적 컨테이너 운송 시 발생하지 않는 ‘내부(내품) 상하차 작업 시간’을 원가에 반영하여 원가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

- 환적컨테이너의 경우, 내부(내품) 상하차 작업 시간 대신 '항만에서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간'이 원가조사에 반영되었으며 실제 운행에 발생하지 않는 요소를 원가에 반영하였다는 해운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
- 올해 7월부터 '22년도 적용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,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운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차질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, 한승한 주무관(☎ 044-201-4018, 4020)에게 연락주
시기 바랍니다.